

월드컵 이후의 안전보건을 생각하며...



한국산업안전공단 / 김 용 달 이사장

월드컵 축구의 축제열기가 온 나라를 열광시켰다. 한민족의 자긍심과 태고적 순수성을 일깨웠고 원초적 국민통합을 실현시킨 '오! 필승 코리아'의 함성은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고, 4천 7백만의 국민을 하나로 묶은 '붉은 바람'은 월드컵이 끝난 지금도 그칠 줄을 모른다.

우리에게 국민통합과 국운상승의 기운을 느끼게 했던 월드컵이후 우리사회는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경제계 일부에서는 월드컵이후의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 우리민족이 사회적 통합을 통한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후진부문을 혁신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있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산업현장에서도 이번 월드컵 때 보여준 열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는 물론 매년 8만1천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안전문제에 이르기까지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재해의 경우 지난해 재해자수가 81,434명으로 전년대비 18.1%가 증가하였고, 사망자도 2,748명으로 8.7%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재해손실액은 2000년도 국민총생산(GDP)의 1.8%에 이르는 8조 7,230억원을 기록했다.

미래 산업 환경을 공중 보건 의치주 장업사

이러한 산업재해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사업주, 근로자, 정부가 혼연 일체가 되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95년도에 처음으로 1%미만대의 산재율을 기록했으나 최근 그 수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관심과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의 기업들은 무한경쟁·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경영에 중점을 두고 산재예방에 힘쓰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안전·보건은 물론 환경과 품질까지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하는 것을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경영 여건의 변화와 아울러 다양화되고 전문화 되어가는 산업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재해와 직업병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재해증가의 원인으로 산재보험가입 의무 사업장이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5인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점을 들고 있으나 이외에도 업무상 질병자중 그 수치가 58.37%로 엄청나게 늘어난 근골격계 질환이나 업무상질병 사망자의 58%를 차지하는 뇌심혈관계질환, 그리고 VDT증후군 증가로 재해 증가의 폭이 커진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직업병은 선진국의 사례나 그 증가 추이로 볼 때 그 위험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점차 전문화되어 가는 산업과 다양한 작업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해가 다발하는 사업장이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업종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강화, 기업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및 자금의 지원, 노·사의 안전에 대한 의식제고 등의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경우 최근의 안전관리활동이 단순히 사고를 방지하는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공정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합리적인 생산활동이라는 인식아래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온 국민이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던 축제는 끝이 났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가 단순히 월드컵이라는 한여름밤의 축제로만 끝이 난다면 우리의 가슴은 더 공허해 질 것이다.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사회 모든 부문에서 후진부문을 혁신하고, 선진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숙된 선진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한빛**